



주간통일정세 2011-39(2011.09.19~09.2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3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국방부 "김정은, 당무·정책전반에 지속개입"(9/1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군과 공안기관을 기반으로 당무(黨務)와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19일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힌 뒤 "지난 9일 제63주년 정권창건일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은 강성대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식량 확보와 전시성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대표부에 식량 긴급도입을 지시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평양시 고층아파트 건설 등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116회 공개 활동 중 경제 분야에 55회에 집중하는 등 '위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에 노력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국방부는 보고
 - 국방부는 "북한군은 7월 이후 연례적인 하계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1일 시작된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측 조업어선을 통제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국방부는 "동·서해 잠수함 등 북한군 침투세력은 예년 대비 조기에 훈련을 시작한 후 장기간 반복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전략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 **北 "접촉·교류로 남북관계 개선입장 변함없어"(9/19,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흑삼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도 오늘도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포함해 대화와 협상, 접촉과 교류로 북남관계 개선과 그 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애국애족적 자세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이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한 핏줄을 나눈 부모형제, 친척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로만 그들의 상봉에 대해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강조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
-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나 "통일부는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해 북남간의 일체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대범한 대화와 협상제안을 끝끝내 외면하고 방해만 놓았다"고 비난

● **北, 리기범 中선양 총영사 5년 만에 교체(9/20, 연합뉴스)**

- 리기범 중국 선양(瀋陽)주재 북한 총영사가 부임 5년 만에 교체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06년 9월 부임한 리 총영사는 1990년대 중반 주중 북한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인맥을 넓혀온 데다 중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해 북한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혀왔음.
- 그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교역 중단 등으로 북한이 어려움에 놓인 상황에서 북·중간 경제협력과 교역 확대,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중국 동북지역을 경유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사이에 모두 4차례 있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고, 황금평과 라선특구의 북·중 공동개발이 성사되도록 중국 지방정부들과 막후 조정에도 관여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군·보안기관에 지휘권 행사"(9/21, 연합뉴스)**

- 후계 공식화 1주년을 앞둔 북한 김정은이 군과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내부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1일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호 아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1국장 등을 통해 군부대 개편과 작전지시 등 실질적인 군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일선 군부대 지휘관을 자신에게 충성심이 강한 30~40대로 교체해 자연스럽게 군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보안기관의 조직과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해 지휘권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 내 '한국풍



척결' 등 비사회주의 타파를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이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감사권을 행사하면서 비리 간부를 숙청하고 청년층의 대거 입당(100만 명 이상 목표)을 추진하는 등 당 업무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
- 소식통은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작업이 가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결가지'로 전략한 이복형 김정남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으며, 그는 "2009년 김정은이 보위부를 시켜 북한 내 김정남 측근 인물들을 탄압하자 위협을 느낀 김정남이 중국 베이징과 마카오 등지를 떠돌며 해외 언론을 상대로 세습체제를 비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최영립 총리 곧 방중"(9/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립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가 곧 중국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중앙통신은 최 총리의 방중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밝히지 않음.

● 北김영남, 촌말리 라오스 대통령과 회담(9/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최태복·김영일 당비서, 박의춘 외무상, 박근광 당 중앙위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명산 무역성 부상, 한봉호 라오스주재 북한대사 등이 참석
- 라오스 측에서는 통룬 시수릿 부총리 겸 외무상을 비롯해 분폰 부타나봉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츠잉 솜분칸 당선전교양위원장 등이 나옴.

● 7대 종단 대표, 北김영남 면담(9/22, 조선중앙통신)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동포애의 정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모임에는 7대 종단 대표들과 북한의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철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일, 방북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9/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흠말리 시야손 라오스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일·박도춘 당비서, 주구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배석했고, 라오스 측에서 통룬 시수릿 부총리, 분폰 붓다나봉 인민혁명당 중앙위 비서, 츠앙 섬분캄 당선전교양위원장 등이 참석
- **"김정일 건강 이상으로 印尼 대표단 회담 취소"(9/25, 지지통신)**
 -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등 대표단이 최근 방북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지지통신이 25일 인도네시아 방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아가 이끄는 투쟁민주당 대표단은 이달 12~16일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이 간부는 설명
 - 김 위원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고 이 간부는 설명지지통신은 이런 식으로 예정된 회담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방북 기간에 최태복 조선노동당 서기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짐.

나. 경제

- **윤상현 "北, 3년간 사치품 수입액 1조1천억 원"(9/19, 연합뉴스)**
 - 국제 사회의 규제와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19일 공개한 북한의 사치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총 10억4천84만 달러(1조1천225억 원)를 지출
 - 북한의 3년간 사치품 수입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 총액(7억2천2만 달러)보다 44.5% 많은 액수로, 수입사치품은 주로 고위층 전용 물품으로 공급되거나 평양 내 백화점과 외화상점에서 부유층을 위한 판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
 -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입액이 2배가량 늘었는데 이는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에 따른 체제보위 계층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분석
-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 달러 기부"(9/20, 미국의소리(VOA))**
 - 이탈리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에 43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개별국가가 WFP에 대북식량지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지난 7월 중순 호추에 이어 두 달 만인데, 이탈리아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임.

● **美 "북한 아시아 최악의 식량부족국"(9/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농무부가 아시아의 23개 식량부족국가 중 북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농무부의 '식량안보평가 2011~2021' 보고서를 인용해 20일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농무부 보고서는 북한이 확보한 식량과 필요한 식량의 차이가 15%를 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인구 70% 이상이 식량 부족상황인 것으로 평가
-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스테이시 로슨 연구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식량농업기구(FAO)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천100cal의 영양섭취를 권장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영양분 섭취는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최저 수준"이라고 말함.
- 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비료나 연료, 농기구 부족과 함께 잘못된 정책과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잘못된 농업정책을 고집하는 한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

● **中기업, 北해산서 구리 채굴 개시(9/20, 신화통신)**

-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 기업의 구리채굴이 시작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평양발로 보도
- 지난 2007년 11월 북한 측 채취공업성과 중국 측 완상(萬尙)자원유한공사 간에 공동 설립된 해산-중국 공동벤처 광산회사가 19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 회사는 구리 채굴과 판매를 겸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 北과 투자협정 체결 잠정보류"(9/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인도정부가 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도의 영자신문 파이낸셜 크로니클 인터넷판을 인용해 22일 보도
- 이 신문은 인도 재무부 문건을 인용, 지난 6월10일 인도 외교부가 '인도-북한 간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을 당분간 추진하지 말 것을 연방 각료회의에 제안했다고 전함.
- 이 문건은 인도 정부가 2006년부터 북한과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해 그 해 6월22일 각료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인도 외교부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협정 체결을 보류토록 내각에 요구해 최종 협정문 서명과 의회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 신문은 '정치적 고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정부가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사실상 핵실험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 RFA는 "인도의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글로벌스틸홀딩스가 북한의 무산 철광석 광산 개발을 위한 투자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봄.

● **北 "대지진에 끊긴 강서약수 60일 만에 재분출"(9/22, 우리민족끼리)**

-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끊겼던 북한의 국보 '강서약수'가 60일 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60일 만에 다시 태어난 강서약수'란 글에서 "3월11일 일본땅 대지진의 지각변동으로 12일 아침 완전히 멎었던 강서약수가 꼭 60일 만인 5월11일 다시 터져 올랐다"며 "제2차 평양 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에는 사라졌던 강서약수가 다시 진열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전함.
- 강서약수는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한 약수로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아연, 나트륨, 철분 등 필수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만성위염, 위·십이지장 궤양, 동맥경화, 숙취해소 등에 좋아 북한 당국이 '조선국보 56호'로 지정하고 있음.

● **北中 교역액 또 사상최대 경신 전망(9/23, 연합뉴스)**

- 올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 간 교역액은 30억9천759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한해 교역액(34억7천82만 달러)의 88%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08년의 기록을 깬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간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 그러나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 및 수입액의 월별 누계 증가율은 1~5월 215.1%, 1~6월 201.9%, 1~7월 169.2%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한편 이 기간 중국은 북한에 17억8천362만 달러를 수출하고 13억1천397만 달러를 수입해 흑자구조를 이어갔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 수출은 53.3%, 수입은 169.2% 증가한 것이어서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30.4% 감소
-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디젤화물차량, 질소비료 등이었고 수입품은 무연탄, 철강, 비합금선철, 미합금 아연 등임.

● **北쌀값 1kg에 2,200~2,400원. 4월부터 상승(9/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이 1kg당 북한 돈으로 2천200~2천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1kg당 쌀값은 1월 2천원 수준에서 2월 1천



600~1천800원, 3월 1천400~1천500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4~5월 1천800~1천900원으로 뛰기 시작해 6월 1천900~2천원, 8월 초 2천~2천200원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데다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수요를 충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 내각총리, 9.20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 현지 시찰(9/20, 중통)

다. 군사

● "北잠수정 침투훈련 올해 급증..6~8월 특히 늘어"(9/19, 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정·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연안 경계를 맡은 해군 초계함의 잠수정 탐지율이 낮아 문제로 지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월 북한의 서해상 잠수함정 침투 훈련은 겨우 2차례, 2009년 같은 기간에도 5번에 불과함.
-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2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총 50건의 침투 훈련이 실시
- 동해상의 (반)잠수정 침투훈련이 올해 1~8월 골고루 분포된 것과는 달리, 서해상 침투훈련은 6~8월 사이 집중됐으며 특히 이 기간 침투훈련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을 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달부터 시작된 서해 꽃게 조업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어선의 활동량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
- 이에 비해 북한의 대남 비방은 지난해 1~8월 3천800여 건이었던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천200여건으로 감소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작년 1~8월 1천400여건에서 올해 70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북한은 잠수정과 함께 현재 상륙전력으로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약 26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해도 고암포 지역에 격납고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지속된 만큼 현재 완공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신 의원은 "연안 경계는 초계함들이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사건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여전히 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대남 비방 완화



등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꽃게 조업 철이 끝날 때까지 구축함 투입 등을 통해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 **北해군 부사령관, 베이징서 中해군 사령관 면담(9/2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북한 해군의 윤성일 부사령관이 20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해군의 우성리(吳勝利) 사령관과 회동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함.
- 윤성일 부사령관의 중국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내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기로 하고 최근 러시아군 동부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텐코가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 해군을 비롯한 군대 간 교류 재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
- 윤성일은 우성리 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중 양측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저명화가 그림, 中경매시장 등장(9/19, 양성만보(羊城晚報))**

- 광둥(廣東) 텐하이(天海)경매회사가 19일 열리는 가을철 경매행사에서 북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당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들을 경매에 부친다고 양성만보(羊城晚報)가 보도
- 이번 경매에서는 북한 저명 작가들의 대형 그림 12점 등이 경매될 예정
- 중국의 한 화가는 "화가 개인이 그림을 팔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북한의 화가들은 영리적이거나 인기 영합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민족성이나 예술성을 표현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지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그림의 중국 내 시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말함.

● **北나선에선 오라스콤 휴대전화 무용지물(9/20, 조선익스체인지)**

- 북한이 대외 개방용 경제특구로 개발 중인 나선 지역에서 '북한 유일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아닌 태국기업의 서비스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짐.
- 지난 8월 말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참석차 방북했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대표는 나선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대신 태국기업인 '록슬리퍼시픽'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록슬리퍼시픽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과 오라스콤 간의 계약과는 별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북한은 지난 2002년 록슬리그룹과 '동아시아전화통신회사(NEAT&T)'를 설립한 뒤 평양과 나선시를 시작으로 북한 각지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



작했다가 2004년 6월 갑자기 이 서비스를 중단했고, 2008년 말 오라스 콤과 75대 25로 투자한 '고려링크'를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재개

- 아브라미안 대표는 "나선사에서 외국인도 휴대전화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국제전화 사용도 불가능하다"며 "2012년 내에 국제전화와 이메일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힘.

● "北국립교향악단 11월 미국서 공연 추진"(9/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이 11월 미국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일본에서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만난 조총련 관계자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결정됐다"며 "미국 민간단체를 통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는 2008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뉴욕의 외교소식통도 "북한이 오랫동안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희망했으며, 이번 방미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北국경서 전방위 단속·南드라마CD 나오면 구속"(9/22, (사)좋은벗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를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주민단속과 세관검열 등이 대폭 강화
- 22일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호위사령부 주도 아래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혜산,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 등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를 찾아내려고 집중단속을 실시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을 보고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 당국은 탈북을 기도하거나 국외연락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색출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 중이며, 무등록 전화기만 나와도 지위와 배경에 관계없이 무조건 잡아들이고 있음.
- 좋은벗들은 북한 중앙당 간부 등의 말을 인용,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 등을 비호해온 보위부원이나 검찰, 보안원 등 법기관 일꾼들도 꼼짝 못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 "전화사용자는 무조건 반역죄로 처벌된다. 무역일로 해외주재원과 통화하던 본사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전함.
- 이 단체는 또 "8월20일부터 전국적으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도 맹렬히 진행돼 현직간부들이 대거 철직(撤職)되거나 해임돼 새로운 인물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세대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전함.



● 北, 자전거여행 외국인에 첫 개방(9/22, 텔레그라프)

- 최근 외국인 20여 명이 자전거를 타고 북한의 평양~남포 구간을 여행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이 22일(현지시각) 도쿄발 기사로 전함.
-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고려여행'(Koryo Tours)이 10개국에서 북한여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24명을 모집, 최근 열흘간 북한에서 자전거여행을 실시
- 텔레그라프는 이번 여행 역시 최근의 '금강산 크루즈 여행'처럼 북한이 잠재적인 여행시장을 개발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여행은 매우 통제돼 있고 여행객은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소개함과 동시에 여행객이 백두산을 오르는 장면, 북한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군인들과 조우한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

■ 기타 (대내 경제)

- 北정부, 9.20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5돌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해 청류관에서 연회 마련(9/20, 중통·평방)
 - 강능수(내각부총리), 김용진(교육위원장),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관계부문 일꾼들, 교원, 연구사들 참가
- 제6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 폐막식, 9.20 김경호(北태권도위원장/폐막사) 등 참가下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20, 중통·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말聯, 자국 국기 거꾸로 단 北상선 나포(9/19, 뉴스트레이츠타임스)

-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가 자국 국기(Jalur Gemlang)를 거꾸로 달고 영해에 정박 중이던 북한 상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 타임스' 인터넷판이 19일 보도
-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17일 남쪽 수역인 탄중 피아이에 정박해 있던 북한 선적 상선 'MT 용안(MT Yong An)'호를 붙잡아 선원들을 구금했다고 밝힘.
- 해안경비대는 말레이시아 국기의 위아래를 뒤집어 단 선박을 발견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선박이 신고 없이 말레이시아 해역에 들어와 불법 정박 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

● 말聯, 자국 국기 거꾸로 단 北상선 나포(9/19, 뉴스트레이츠타임스)

-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이 21일 북한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한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중앙방송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촌말리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전



했지만 방북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방송은 촌말리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조선(북한)과 라오스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강조

● "中, 탈북자 강제복송 대신 한미에 인도해야"(9/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CPNKR)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ICPNKR는 주미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경제난민으로 규정해 강제로 복송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미 서명한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한국 또는 미국에 인도하라고 요구
- 서한에는 ICPNKR 상임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가키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이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9.19 離任 駐北 영국 대사('피터 휴스')와 담화(9/19, 중통·평방)
- 北 외무성 부상 '리용호', 9.19 베이징에서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 및 미국에 '2차 北-美대화 제안' 사실 공개(9/21, 중통)
- '쫄말리 싸이냐쑤' 라오스 주석, 9.21 평양 도착 및 환영의식 진행(9/21, 중통·중방)
 - 김영남·최태복·김영일·박의춘·양만길·駐北 라오스 대사 등 마중
- '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 9.21 駐北 나이지리아 및 시리아 대사와 각각 담화(9/21, 중통)
- 라오스 주석, 9.22 금수산기념궁전·만경대방문 및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평양방직공장·만수대창작사 참관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 종합공연 관람 등 訪北 動靜 상세히 보도(9/22, 중통·중방)
- 박의춘 외무상, 9.22 네덜란드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9/22,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中 "남북한과 밀접한 접촉 유지 중"(9/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9일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6자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2차 남북비핵화 회담이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의 이런 발언은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비핵화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온 것임.

● 남북 내일 2차核회담..당국자 "열린 자세로"(9/20, 연합뉴스)

-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이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제1차 남북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대화에 이은 '2라운드' 후속대화의 출발점으로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이며 비핵화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뤄볼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지금은 비핵화의 과정에 들어와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북미) 양자협정도 매우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강조
- 그는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매우 긴요한 부분(essential part)"이라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후속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서 "남북대화를 위시해 다양한 양자협의 과정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멀지 않은 시기에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 北 '조건 없는 6자회담' 거듭 촉구(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외신의 보도 내용 등을 잇따라 전하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
-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을 재개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취싱(曲星)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언과 함께 "전제조건 없이"가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내용을 전함.
- 중앙통신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의 보도내용과 아울러 6자회담 당사국간 상호 신뢰와 호혜, 협조 등을 강조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도 소개

-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베이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화에 앞서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준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

● 남북 '사전조치' 평행선..부분적 진전가능성(9/21, 연합뉴스)

-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2차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시적인 접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일부 진전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 시내 장안클럽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3시간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남측과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열자고 주장하는 북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뚜렷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
- 리용호 부상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북남 쌍방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회담결과에 토대해서 앞으로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빨리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힘.
- 우리 측은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북측에 제기했으나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또 남북 경협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부상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
- 남북 제2차 비핵화 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후속 협상은 북미대화론로 넘어가게 됐으며, 북한은 최근 미국 측에 지난 7월 뉴욕 북미대화에 이은 후속 북미대화를 제안했으며 미국은 현재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남북 제2차 비핵화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국과의 교섭을 거쳐 북미대화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후속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우리 정부도 동의의사를 표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대화가 열릴 것으로 전망

● 위성락·우다웨이 회동..남북접촉 결과 설명(9/22, 연합뉴스)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전날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결



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 위 본부장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한 우 특별대표의 질문에 "(기자들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항상 박하게 기사를 써 준다. 그런데 제가 사실보다 조금 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 얘기보다 조금 더 후하게 써 주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말해 전날 남북 접촉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한층 긍정적이었음을 시사

3. 대남정세

● 류우의 "원칙 지키되 北과 대화채널 열 것"(9/19, 연합뉴스)

-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일부는 정책의 기초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갓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불안정하지만 우리는 이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래서 북한에 거듭 비핵화 진정성과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고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미래, 그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역설
- 류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 들러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라면서 "특히 인접국이나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정책은 어떤 것은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만 어떤 정책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탕에 스며드는 것도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라"고 당부

●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보험금 작년보다 줄어(9/19, 연합뉴스)

-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남측 기업 수와 전체 보험성립금(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경협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8월 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45곳을 포함해 총 148곳으로 보험성립금은 3천703억 원임.
- 통일부는 보금가입 기업이 준 것에 대해 "올해 6개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지 등을 판 기업이 보험에 다시 가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부동산(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해 거래건수는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4건, 2011년 1건 등을 기록

- **대북차관 1조83억 원..내년 6월 첫 상환 도래(9/19,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공한 차관 규모가 1조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9일 통일부가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차관 현황'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식량 7천842억 원, 철도 자재·장비 1천494억 원, 경공업 원자재 747억 원 등 총 1조83억 원으로 이는 청산절차가 진행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에 대한 경수로대출 1조3천655억 원을 제외한 것임.
 - 정부는 대북 식량과 철도 자재·장비 차관에 대해서는 연 1%의 이자율로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제공했으며, 경공업 원자재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3% 상환, 나머지는 연 1%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 이 가운데 첫 상환 기일은 내년 6월7일로, 규모는 2000년 제공한 대북 쌀 차관의 첫 상환분 583만4천372달러나 어려운 경제난 등을 감안하면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차관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개성공단 北근로자에 총 1천800억 원 지급(9/19, 연합뉴스)**
 -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1억6천만 달러(1천8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9일 통일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에게 제출한 '개성공단 임금총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 총액은 1억6천643만8천775달러로 집계
 - 연도별로는 2004년 38만8천895달러에서 2006년 701만3천598달러, 2008년 2천686만3천548달러, 2010년 4천868만6천793달러, 올해 6월 말 현재 2천843만7천906달러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도 최근 들어 매년 5%씩 인상된데 따른 것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2005년 6천13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만7천 630명으로 급증했으며, 북측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임금도 2006년 68.1달러에서 올해 6월 102.9달러로 증가

- **통일부 "北 7월말 현재 식량부족 20만여t"(9/19, 연합뉴스)**
 - 통일부는 19일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쌀 비축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7월 말 현재 20만여t으로 추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 1일 최소권장량(성인 1일 458



g)을 기준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50여만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수요량이 460여만에 비해 지난해 생산량은 411만으로 추산하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이 외부로부터 23만7천t의 식량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 결국 7월 말 현재 부족량은 20만여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

- 또 북한군의 연간 식량소비량은 약 27만t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북한 군인수(119만 명)에 군인 1인당 1일 배급량 624g을 적용한 것임.
- 통일부는 북한의 1일 정상 배급량은 성인기준으로 곡물 700g이지만 1973년부터 전쟁비축미(12%), 1987년부터 애국미(10%) 등의 명목으로 22% 감량배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통일부는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만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며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식량수입에 투입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다"고 설명

● 개성공단 소방서·응급의료시설 건립 추진(9/20, 연합뉴스)

-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내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등 개성공단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내 건물에 소방차량 8대, 소방인력 36명(남측 4명, 북측 32명) 규모의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 해당 안전을 이달 중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상정하고, 다음 달 설계를 거쳐 2012년 4월에 착공하기로 함.
-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상 10개, 의사·간호사 등 10여명의 의료진을 갖춘 응급의료병원을 2010년 말까지 개성공단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연

● 류우의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 바람직"(9/20, 연합뉴스)

- 류우의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통일경제특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조정안도 이미 외통위 법안소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힘.
- 류 장관은 "통일경제특구법이 혹시 남북협력기금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특구법 규정에 따라 남북협



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

● <李대통령, '원칙있는 대북정책' 재천명>(9/21,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협력 강화'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남·북·러 가스관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이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 전망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민화협, 밀가루 7차분 100t 北에 전달(9/22,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2일 오전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7차분 밀가루 100t(5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민화협은 그동안 사리원시에 밀가루 1천454t을 지원했고 10월 말까지 총 2천500t을 전달했으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사리원시의 유치원과 애육원 등 밀가루 분배시설을 방문해 2차 모니터링을 실시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앙제츠 "6자회담 추동해나갈 것"(9/19)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19일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자 책임 있는 나라로서 9.19공동성명 실천 노력을 계속해나가면서 6자회담을 추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양 부장은 9.19공동성명 6주년을 맞아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 개막 연설에서 "9.19공동성명 정신을 견지하는 한 6자회담은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양 부장은 남·북한이 2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2차 비핵화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6자회담 관련국들이 최근 새로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이 기회를 잡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부장은 "한반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아 남북이 장기 대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21세의 발전 조류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관련국들의 노력 하에 냉전적 사유를 버리고 상호신뢰, 상호 윈윈, 평등협력의 새 안보관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양 부장은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유효한 틀"이라며 "중국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유관국들의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실천해나가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6자회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며 "최대의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통인식을 마련해나가지"고 제안했다.
-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에서는 외교관들이 참석했지만 남한과 미국 일본에서는 외교 당국자들 대신 학자 등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참석했다. 우 특별대표는 21일로 예정된 남북 2차 비핵화 회담 개최에 관한 질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北리용호 "조건 없는 6자회담재개 주장할 것"(9/19)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을 앞두고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리 부상은 또 지난 7월 열린 1차 북미대화에 이어 최근 미국에 2차 북미대화를 제안했다고 공개했음.
- 리 부상은 19일 9.19공동성명 6주년을 기념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대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와 믿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때문에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 같은 리 부상의 발언은 우리 당국이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2차 비핵화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 조치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나온 것임.
- 한·미·일은 그동안 북한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해왔음.
- 북수의 세미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리 부상은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21일 열릴 예정인 남한과의 2차 비핵화 회담에서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리 부상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1차 북미대화에 이어 최근 미국에 2차 북미대화를 제안했다고 공개해 1차 비핵화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가 곧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음.
- 리 부상은 9.19공동성명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음. 아울러 리 부상은 국제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음.
- 리 부상은 북한이 9.19공동성명에 따라 플루토늄 핵 시설을 불능화했는데도 나머지 6자회담 관련국들이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리 부상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6자회담을) 빨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음.

● 남북 '사전조치' 평행선대치.. 접점도출 난항(9/21)

- 남북한은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한 제2차 남북 비핵화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했음. 그러나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사전 조치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측



-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 회원 전용 클럽인 장안클럽에서 회동했음.
-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25분(현지시각)부터 11시55분까지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연 뒤 각각 본국 보고와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오후 3시30분 회의를 속개했음.
 -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리 부상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괜찮았다"면서 "오후에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밝혔음. 위 본부장은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오후에 이어서 하게 된다"면서 "오후까지 해 봐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음.
 - 회담에서 우리 측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우리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일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우리 측은 특히 마지막 6자회담이 열린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당시와 유사한 불능화 논의 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북측은 당초 자신들이 주장해온 ▲제재 해제 ▲선(先) 평화협정 논의의 전제조건을 철회한 만큼 남측도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20일 외신의 보도 내용 등을 잇따라 전하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했음.
 - 양측은 그러나 후속 북미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사전조치들에 대해 계속 접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협의결과가 주목됨.
 -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위 본부장과 조현동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6명, 북측에서는 리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미국 부국장 등 5명이 참석했음. 우리 측은 회담이 끝나는 대로 위 본부장을 통해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임.
 - 이번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개최에 따라 북미 양국은 지난 7월 뉴욕 북미대화에 이은 후속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형식의 후속 북미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남북 '미완의 협상'..공은 북미대화로>(9/21)

- 6자회담 재개 흐름의 분수령으로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21일 '미완의 협상'으로 막을 내렸음. 남북 양측은 이례적으로 마라톤협상에다 만찬회동까지 해가며 점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비핵화 사전조치를 끌어내려는 남측과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수해온 북측의 입장이 큰 틀에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공은 사실상 '2라운드'의 또 다른 축인 북미대화로 넘어가게 됐음.



- 이 같은 협상결과는 사실상 예견된 측면이 강했음.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둘러싸고 깊은 간극을 보여 온 양측이 사실상 첫 협상테이블에서 가시적인 접점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임.
- 여기에 남북 비핵화 회담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작용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우리 측은 남북-북미대화의 적절한 병용과 '역할분담'을 통해 북한의 사전조치를 견인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북측은 남북 비핵화 회담을 북미대화라 가기 위한 형식적 '경유코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회담이 가시적 접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전체 6자회담 재개의 프로세스로 볼 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측면은 있어 보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서로 유익하고 좋은 대화였으며 이런 대화과정을 지속해 나가면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음. 그는 특히 "오늘 협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부분이 있고 약간의 의구심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이 해소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음.
- 이는 우리 측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일부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추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 당장 남북대화 채널은 아니더라도 추후 북미대화를 통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가 비핵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이 일부 진전된 입장을 시사했을 경우 이는 후속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무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또 6자회담 재개 조건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후속대화 과정에서 훨씬 탄력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 정세흐름 속에서 북미대화가 갖는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음.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몫을 떠안게 된 것임. 북미대화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형식이 유력하며 시기는 내달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 비핵화 회담이 남긴 '미완의 협상'을 북미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재개될 6자회담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북미 양측은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도출된 '부분적인 성과'를 6자회담 재개의 동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유연성'과 '협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문제는 현국면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UEP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이기도 하거니와 6자회담 본협상의 의제와 직결돼 있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살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 UEP를 놓고 첨예한 공방전이 전개될 경우 협상 전체가 초반부터 교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럴 경우 판 자체가 깨지지 않겠지만 6자회담 재개 흐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 대목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할 변수임. 북미대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중국은 6자회담 조기재개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외교전이 불붙을 가능성이 있음. '진전'과 '교착'의 변수들이 뒤엉키면서 6자회담 재개 기상도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임.

● 위성락·우다웨이 회동..남북접촉 결과 설명(9/22)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2일 오전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음.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전날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위 본부장은 이번 비핵화 회담이 유익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대화 과정이 지속될 경우 비핵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 특별대표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측은 또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국이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위 본부장은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한 우 특별대표의 질문에 "(기자들이) 제가 얘기한 것보다 항상 박하게 기사를 써 준다. 그런데 제가 사실보다 조금 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 얘기보다 조금 더 후하게 써 주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말해 전날 남북 접촉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한층 긍정적이었음을 시사했음.
- 우 특별대표는 이어 기자들을 향해 "위 본부장의 말은 (자신은) 여지를 남겨두니 언론들이 기사를 쓸 때 그 여지를 없애도록 적절히 보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일 베이징에 도착한 위 본부장은 2박3일간의 중국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할 예정임. 한편 전날 위 본부장과 만난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 또한 귀국에 앞서 우 특별대표와 회동을 갖고 2차 비핵화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6자회담 재개와 수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한미 '북미대화' 협의...케이건 美한국과장 방한(9/24)

- 한미 양국은 베이징(北京)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북미대화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음.
-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3일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참석차 방한한 에드워드 케이건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회동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양측은 회동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후속 북미대화의 운용방향과 의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측은 이번 비핵화 회담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미대화와 적절히 병용해가며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가시적 태도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처해나가는 입장을 표명했음.



- 미국 측은 남북 비핵화 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 북미대화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가에서는 내달 초 베를린, 제네바 등 유럽의 제3국 도시에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 한편 케이건 과장은 지난 22일 SPI 회의를 겸해 열린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회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 회의에 참석하고 23일 출국했음.

나. 미·북 관계

● "북국립교향악단 11월 미국서 공연 추진"(9/22)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이 11월 미국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일본에서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만난 조총련 관계자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에 가는 것은 거의 결정됐다"며 "미국 민간단체를 통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는 2008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임. 미국 뉴욕의 외교소식통도 "북한이 오랫동안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을 희망했으며, 이번 방미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기업, 北해산서 구리 채굴 개시(9/20)

-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 기업의 구리채굴이 시작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지난 2007년 11월 북한측 채취공업성과 중국측 완상(萬尙)자원유한공사 간에 공동 설립된 해산-중국 공동벤처 광산회사가 19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음. 이 회사는 구리 채굴과 판매를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그러나 해당 기업의 규모는 물론 구리 채굴 및 판매 예상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음.
- 공장 첫 가동행사에 강민철 채취공업상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 등의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음.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은 김 철 양강도 인민위원장이 행사 축사를 통해 "북·중 공동벤처 기업은 양국 간 우호 발전의 상징이며 현대화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류홍차이 대사는 "공동벤처 기업에 중·북 양국과 인민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고 양국 간 전통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해군 부사령관, 베이징서 中해군 사령관 면담(9/21)**

- 북한 해군의 윤성일 부사령관이 20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해군의 우성리(吳勝利) 사령관과 회동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전했다.
- 윤성일 부사령관의 중국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내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러시아군 동부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덴코가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 해군을 비롯한 군대 간 교류 재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북러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됨.
- 윤성일은 우성리 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북중 양측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우성리는 중국정부와 군은 양국의 전통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해군우호관계 강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성일은 방중기간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해군 잠수함 학원 등을 방문하고 해군 함정과 해군 부두 등을 참관할 예정이다.

● **北 "최영림 총리 곧 방중"(9/21)**

- 북한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 겸 내각 총리가 곧 중국을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 총리의 방중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다.
- 최 총리는 방중 기간 중국 측과 나선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협력문제를 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임. 최 총리는 지난해 11월에도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등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했다.

라. 러·북 관계

● **"러시아, 對북한 5만t 식량 지원 완료"(9/20)**

-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약속한 약 5만t의 곡물 선적을 모두 마쳤다고 러시아 국영 곡물회사 '통합곡물기업(OZK)'이 19일 밝혔다.
- OZK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7월 27일 자 지시와 정부의 7월 28일 자 지시에 따라 OZK가 국가 비상식량 비축분에서 5만t의 밀을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OZK는 대북 곡물 선적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이스크 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만5천t은 8대의 선박을 통해 블라



디보스토크 항에서 북한 흥남항으로 보내졌고, 뒤이어 2만4천500t의 곡물을 실은 선박 '미그 콘코드(Mig Concord)'가 18일 노보로시스크 항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 선박은 10월 말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OZK는 덧붙였다.

- 북한은 지난 8월 19일 러시아가 지원한 밀가루를 실은 첫 배가 흥남 항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음. 러시아의 대북식량지원은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장관회담에 참석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요청해 성사됐음.
- 발리 회동에서 박 외무상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밀가루 지원을 요청했고 라브로프 장관이 북측의 요청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금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지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이번 곡물 지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러시아 정부의 계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마. 기 타

●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 달러 기부"(9/20)

- 이탈리아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지원에 43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개별국가가 WFP에 대북식량지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지난 7월 중순 호주에 이어 두 달 만임.
- 이탈리아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북지원에 나서는 것임.
- WFP는 올해 들어 호주,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13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1%인 6천437만 달러를 확보했음.

● 김정일, 방북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9/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일·박도춘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이 배석했고, 라오스 측에서 통론 시수릿 부총리, 분폰 붓다나봉 인민혁명당 중앙위 비서, 츀앙 섬분캄 당선전교양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 중앙통신은 그러나 회담이 열린 구체적인 장소나 의제는 언급 안 했음. 김 위원장과 촌말리 대통령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친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함께 인민군 무장장비전력사 전람관을 참관했음. 촌말리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김정은에게 선물을 전달했음.



-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김 위원장이 마련한 연회가 열렸음. 김 위원장 초청으로 지난 21일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한 촌말리 대통령은 이날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김영일 당 비서와 박의춘 외 무상, 양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한봉호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떠났음.
- 1974년 수교한 라오스와 북한은 과학, 경제, 무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지난 7월에는 라오스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한을 방문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연말까지 '北국지도발 공동작계' 완성(9/19)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일명 北국지도발 대응 공동작계)을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음.
-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연말까지 국지도발 공동작계를 완성하기로 서명했다"면서 "이런 계획과 관련해 우리 군의 문서체계인 서북도서 방어계획(1월)과 합참예규 및 위기조치예규(6월), 합참의 대(對) 침투·국지도발계획인 '3100-11'(7월)을 각각 보완했다"고 밝혔음.
- 국지도발 공동작계는 북한의 도발시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던 계획에서 탈피해 미측의 지원전력을 우리 군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는 "적 도발시 제대별 대응개념과 대응 수준별 타격절차를 구체화하고, 한·미 공동 징후목록을 개발해 적 도발징후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서북도서 위협에 대비해 한·미 해병대 중대급 연합 기동훈련 및 합동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군 당국은 서북도서 및 서북도서 해안 2km를 기준으로 해병대사령관과 해군 2함대사령관의 책임 및 권한을 분리했던 작전지침을 고쳐 서북도서 및 그 해안에 관한 작전사항은 모두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했음.

● "미사일지침 개정 접촉..한반도 전체 커버 추진"(9/19)

-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음.



- 김 장관은 "개정시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음.
- 군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800~1천km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한·일 관계

● **李대통령-노다 日총리, 뉴욕서 첫 정상회담(9/22)**

-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숙소호텔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발전방안과 북한 문제, 국제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노다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회담으로 일본 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임.
-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과거 양국 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조선왕실 도서 반환, 부품·소재분야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협력 강화,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양국 정상은 또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양국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핵안보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각국 수석대표를 위한 오찬에 참석했다.
- 이 대통령은 반 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김외교, 日 외무상에 '위안부' 결단 촉구(9/25)**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대국적



-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음.
-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맨해튼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겐바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이 인도적인 문제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겐바 외무상은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두 장관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6자회담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조만간 있을 북미대화 등에서 사전협상을 거쳐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또 조선왕조의 도서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했으며, 겐바 외상은 "잘 알겠다"면서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음.
 -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겐바 외상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음.
 - 겐바 외무상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 대국적 관점에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두 나라 관계를 큰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동감한다"고 답했음.
 - 외교부 관계자는 "두 장관 간에 첫 대면인 만큼 양국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개인적 신뢰를 구축하는 자리였다"면서 "현안을 놓고 깊이 있게 줄다리기를 하는 협상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회담에서 일본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재차 요청했으며 한국 측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겐바 외무상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음. 일본 측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조기재개를 희망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음.
 - 김 장관은 겐바 외무상이 영화광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 영화 DVD 3편을 선물했고, 일본 측은 겐바 외무상의 고향 특산물인 일본 술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음.

다. 미·중 관계

● 中, 美에 타이어 특별관세 철회 촉구(9/20)

-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20일 자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관세를 없애달라고 미국에 촉구했음. 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보호 관세 부과를 즉각 철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은 자국 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취한 특별관세 부과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미 양국 간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음.
- 미국은 지난 2009년 9월 26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정상의 셰이프가드 조항을 발동,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총 18억 달러에 해당하는 35%의 징벌적인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중국은 WTO에 미국의 특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WTO 항소기구는 지난 5일 "미국정부가 WTO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국 측 항소를 기각했음.

● 中, 대만 무기판매 강행한 美에 전방위 공세(9/22)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강행에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교류 중단을 포함한 보복성 조치에 나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경연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중·미 양국군의 정상적 교류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며 "미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음.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주권, 영토보전, 핵심이익에 해당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은 매우 강렬한 분노와 반대를 나타낸다"고 강조하면서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잘못된 행동이 중·미 관계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줄 것이고 군사·안보 영역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F-16 A/B기 개량을 포함한 5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번 무기거래의 주계약자인 록히드 마틴을 사실상 겨냥해 "누구든 어떤 회사든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손해를 끼친다면 중국 인민의 결연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기업에 보복 의지를 비쳤다.
- 그는 또 "미국·대만 간 무기거래 문제가 연말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미국은 중·미 관계와 양안(兩岸) 평화의 흐름을 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앞서 중국의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1일 게리 로크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대만에의 무기판매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음. 장 부부장은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무기판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음.
- 중국의 관영매체들도 미국과 대만 간 무기판매 계약 체결 소식을 일제히



- 보도하면서, 그로 인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애초 대만은 최신형 F-16 C/D 전투기 66대 구매를 희망했으나,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F-16 A/B기 145대를 개량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음. 미국 측 주계약자는 록히드 마틴으로 해당 전투기에 대한 레이저 유도 폭탄(LGB) 및 첨단무기 장비 설치, 훈련, 조달지원 등을 할 예정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로크 대사를 상대로 한 항의와 미·중 간 군교류 프로그램 중단에 이어 대미 압박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보유 채권을 대량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매체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어서 양국 관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물론 경제분야에서 '충성없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해왔음.

라. 미·일 관계

● 美日 외교장관 "후텐마 기존합의 착실 추진"(9/20)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밤(일본시간 20일 아침) 회담에서 후텐마기지를 같은 오키나와내 나고(名護)시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작년 5월의 양국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음.
- 4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겐바 외무상은 미일 동맹 강화가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설명하고 후텐마기지 이전과 관련 오키나와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음.
- 이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은 "(후텐마를 나고시로 이전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가 조기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조속한 합의 실천을 촉구했음. 하지만 오키나와현과 주민들이 후텐마기지의 오키나와 내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언제 이전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함.
- 워싱턴을 방문중인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19일 강연에서 "후텐마기지를 일본 국내의 다른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이전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오키나와현외 이전을 촉구했음.

● 오바마-노다, 첫 정상회담..北문제 협력키로(9/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1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경제위기 해결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두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는 사



람들이 일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을 계속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21세기의 필요에 맞게 우리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다 총리는 "미일 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 축"이라면서 "일본과 미국은 경제 성장과 재정 상황 문제(해결)를 위해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장 큰 우려는 회복중인 경제가 다시 또 다른 경제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다 총리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존 합의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정상회담은 노다 총리가 이달 초 취임한 이후 첫 정상회담임. 하지만 두 정상 모두 유엔 총회 참석 기회를 활용한 회담이어서 회담 시간은 30여분 간에 그쳤다. 이 때문에 민감한 현안 논의보다는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의 기회 정도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中-日, 日 총리 연내 방중 합의(9/23)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시내에서 만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연내 방중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양국은 또 지난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주변 섬) 주변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고와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데 대비해 해상 연락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을 확인했음.
- 하지만 양국 외교 수장은 서로 센카쿠열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음. 겐바 외무상은 또 중국 측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취한 일본 식료품 수입 규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 외교부장은 "관계 당국에 전하겠다"고 답변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바. 중·러 관계

● 중·러 군사협력 강화키로(9/24)

-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 수뇌부가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가기라고 강조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귀보슝(郭伯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아니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방향을 논의했음.
- 귀 부주석은 "현재의 복잡하고 도전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함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외국과



의 군사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러시아를 항상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세르듀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례가 없는 단계로 발전해왔으며 여전히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음. 귀 부주석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예방했음. 푸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적인 이슈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국제 사회 및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지난 8월 러시아를 방문해 군사 협력 확대 의지를 다지는 등 중국은 최근 군 수뇌부를 잇따라 러시아에 보내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타진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